

도미니카(공), 페르난데스 대통령 연임 성공

1. 대선결과

- 5월 16일(현지시간) 실시된 도미니카(공) 대통령 선거 결과, 현 레오넬 페르난데스(Leonel Fernandez, 도미니카해방당(PLD)) 대통령의 연임이 유력시됨.
- 전체의 49%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, 페르난데스 후보는 총 유효투표수의 53.8%를 획득하여 40.5%의 득표를 얻은 중도좌파 도미니카혁명당(PRD)의 미겔 바르가스(Miguel Vargas) 후보와 4%대의 득표에 그친 보수진영 아마블레 아리스티(Amable Aristy) 후보를 여유롭게 제치고 당선에 유력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음.
- 도미니카(공) 선거법은 출마 후보가 50% 이상의 득표를 기록할 경우,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짓도록 규정

<페르난데스 대통령 약력>

- 1953년 도미니카(공) 산토도밍고 출생
- 1973년 도미니카해방당(PLD) 가입
- 1978년 산토도밍고 대학 졸업(법학박사)
- 1994~2000년 도미니카(공) 대통령 당선(초선)
- 2001년 국제(민주)개발연구소(FUNGLODE) 설립
- 2004~2008년 도미니카(공) 대통령 당선(재선)
* 2006년 6월 방한
- 2008. 5월 ~ 현재 도미니카(공) 대통령 당선(3선)

2. 당선 배경 및 당면 과제

-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연임 배경은 2003년 경제위기 극복, 수출과 외국인 투자 확대, 미국과 FTA 체결, 내수 경기 회복, 각종 인프라 사업 추진 등 현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데 기인함.
 - 도미니카(공)은 2003년 국내 3위 Baninter 은행의 파산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달러당 페소화 환율이 50까지 치솟고 외환보유고가 2억달러 까지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나,
 - 2004년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이후 물가 및 통화 안정, 건설경기 호조,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과거 3년 평균 9%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.
 - 또한 DR-CAFTA(미국-중미 FTA) 발효를 비롯하여, 산토도밍고 지하철 사업, 사이버파크 건립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한 것 또한 연임의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됨.

<도미니카(공) 주요 경제지표>

	단 위	2004	2005	2006	2007	2008(f)
경 제 성 장 률	%	1.2	9.5	10.7	8.5	4.7
재 정 수 지 / G D P	%	-3.1	-0.7	-1.2	0.4	-0.5
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	%	51.4	4.2	7.6	6.1	8.0
환 율 (달 러 당, 연 말)	Ps	31.11	34.88	33.80	34.34	36.27
수 출	백만달러	5,936	6,145	6,440	7,237	7,266
수 입	"	7,888	9,869	12,004	13,817	14,628
외 환 보 유 액	"	806	1,853	2,127	2,562	2,672
총 외 채 잔 액 / GDP	%	33.6	22.3	23.6	23.2	21.9

자료 : EIU

- 그러나, 현 페르난데스가 직면한 향후 해결과제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.
 - 2006년 총선에서 여당인 PLD가 다수당을 차지하여 향후 정국 운영이 원만할 것으로 예상되나, 선거 중 불어진 현정권의 부패 스캔들 등으로 집

권 초기 90%까지 달했던 정책지지율이 50%를 약간 상회하는 지지율로 낮아진 점 등은 향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음.

□ 또한, 과거 경제호황이 수출과 관광업 호조, FDI 확대 등 미국 경기 호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, 최근에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세 지속, 미국 및 EU 경기 침체, 허리케인 복구 지연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,

- 2008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4% 중반으로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9%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.

□ IMF 프로그램은 금년 1월 종료된 이후 양측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, 재정수지 목표치 등 일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IMF 프로그램 재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.

- 도미니카(공)의 재정수지는 정부의 긴축정책, 경기회복에 따른 세원 증대 등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지난해에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금년 들어 유류 및 전력, 식품 등의 보조금 증가, 대선을 앞둔 선심성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1년만에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.

- 이에 따라 IMF가 요구한 이자비용을 제외한 GDP 대비 재정수지(primary budget) 흑자폭인 1.5%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 (EIU 전망치 : GDP의 1.0%)

3. 향후 전망

□ 페르난데스 2기에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보다는 안정과 균형에 보다 정책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음.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에 교육과 보건 등 사회 인프라 확충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, 대내외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부패척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.

- 현재 과테말라와 도미니카(공) 2개국은 부패 등 낮은 거버넌스(governance) 때문에 중미 5개국과 도미니카(공)(DR-CAFTA 회원국) 중 유일하게 미국의 밀레니엄 펀드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.

□ 한편, 한국과의 관계에 우호적인 페르난데스의 연임 성공으로 양국간 교역 및 인적교류 확대, EDCF 사업, 경제개발경험전수(KSP) 사업 등의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되며, 현 정부 중점사업인 사이버파크 참가 등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EDCF 지원 규모 : 관세통관자동화사업(23백만달러, 본사업 개시)

<양국간 교역 현황>

(백만 달러)	'02	'03	'04	'05	'06	'07
수 출	185	81	73	120	108	120
수 입	21	71	121	68	87	126
무역수지	164	10	△48	52	21	△6
교역규모	206	152	194	188	195	246

책임조사역 최성규(☎ 02-3779-6662)
E-mail : ppio93@koreaexim.go.kr